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مَا هُوَ الْإِسْلَامُ

이슬람思想概要

WHAT IS ISLAM

باللغة الكورية

Religion of Islam  
(<http://www.religionofislam.com>)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IN THE NAME OF ALLAH  
THE MERCIFUL THE COMPASSIONATE**

# WHAT IS ISLAM

- Fundamental Thoughts of Islam -

Religion of Islam  
(<http://www.religionofislam.com>)

توزيع

الرئاسة العامة لإدارات البحوث  
العلمية والافتاء والدعوة والإرشاد

وقف لله تعالى

## 目 次

(1) 統一性의 宗教	7
(2) 神에 歸依하는 宗教	10
(3) 自然의 宗教	11
(4) 苦行의 宗教	11
(5) 眞理의 宗教	11
(6) 禁忌의 宗教	12
(7) 美의 宗教	12
(8) 理性의 宗教	13
(9) 迷信을 否定하는 宗教	13
(10) 實踐의 宗教	13
(11) 均衡감친 進歩의 宗教	14
(12) 科學探究의 宗教	14

(13) 勞動을 神聖視하는 宗教 .....	16
(14) 倫理的 理想主義의 宗教 .....	16
(15) 平和와 親善의 宗教 .....	17
(16) 鬭爭(聖戰)의 宗教 .....	18
(17) 強制的으로 改宗시키지 않는 宗教 .....	19
(18) 兄弟愛의 宗教 .....	19
(19) 精神的 民主主義의 宗教 .....	20
(20) 人間尊敬性의 宗教 .....	20
(21) 理性的인 性道德의 宗教 .....	21
(22) 現世와 來世의 救濟를 함께 所願하는 宗教 .....	23
(23) 確實하고 完璧한 經典을  갖춘 宗教 .....	24
(24) 教理가 가장 簡單한 宗教 .....	25
(25) 完璧하고 人間의 極致인 無함말 .....	25
(26) 神의 사랑속에 吸收됨이 窮極의 目標인 宗教 .....	28

## (1) 統一性的 宗教

### 1. 神의 唯一性

“이슬람敎”는 “一神敎”를 가르치고 多神敎를 인정하지 않는 宗教이다. 무스림은 “神”을 “알라”라고 부른다.

이슬람敎에 의하면 알라는 唯一神이고 個體이며 養子恩이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存在이다. 알라는 자식을 낳지도 않고 어미의 몸으로부터 낳아 지지도 않는다.

알라는 始初이자 窮極이며, 永遠이고 無限이며 全知全能하고 遍在한다. 또한 造物主이며 扶養者이고 萬物을 아껴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萬事에 裁로응고, 弱者나 被壓迫者의 同情者이고 그들에게 迫害을 加하는 惡에 대한 復讐者이고 慈悲로우신 분이고 사랑, 指標, 친구, 壯觀榮光, 아름다움이며 眞理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라는 모든 것에 優越할 분이다.

有名한 西歐史學家 (기본) (GIBBON)은 이슬람敎의 神의 觀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함만의 信條에는 模糊한 懷疑가 없으며 무함만은 神의 唯一性에 대한 榮光의 証言이다. 穢穢의 予言者는 腐敗하는 物體는 반드시 消滅하고 生은 반드시 死를 隨伴하고 떠오르는 것은(出), 반드시 지는(沒) 법이라는 理性的 原理에 입각하여 偶像崇拜, 人間崇拜, 日月星辰崇拜를 拒否하였다. 그는 宇宙創始者의 無限大, 永遠不變性, 時空을 超越하고 神自身의 必要에 따라 神의 完備한 倫理와 知性에서 由來하여 人間의 은밀한 思想속에 나타나는 絶對者임을 알고 熱誠으로 崇拜하였다. 그 至高한 眞理는 古經(經典)에 의해서 形而上學的으로 精妙하게 定義가 내려져 있다. 哲學的 有神論者는 널리 알려져 있는 무함만의 信條에 驚명을 할 일이다.”

### 2. 宇宙의 統一性

이슬람敎에 의하면 宇宙의 統一性, 다시 말하자면 創造와 그 目的의 統一性은 造物主의 單一性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即, 宇宙는 秩序인 것이다.

### 3. 人類의 單一性

이슬람은 全人類를 하나의 “有機體” 即 單一家族으로 看做하여 世

俗의인 差別, 即 人種, 皮膚色, 言語, 國籍의 差別로서 優越을 가할 수 없음을 強調한다. 한가지 差別이 있다면 그것은 「敬神과 義로움」 (이것을 (타그와)(taqwa)라고 한다.) 即, 倫理的인 面과 精神的인 面에서 發揮하는 價值 依부에 따라서 差別이 있을 뿐이다.

英國의 著名한 이슬람批評家인 H. A. R 김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슬람은 民族相互間의 理解와 協助의 嚴格한 傳統을 가지고 있다. 許多한 種族間의 地位, 機會, 努力을 成功의으로 團結시킴에 있어 다른 어떤 社會도 이슬람社會만큼 記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東洋社會와 西洋社會의 對立을 協調로서 代價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슬람의 調整은 예를을 수 없는 條件인 것이다. "

(이슬람은 어느곳에? p. 379)

#### 4. 宗教의 統一性

이슬람에 의한 人間의 知能은 그것이 제아무리 強大한 재물이라 한들 自然的 限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에게 調理의 根源과 人生의 規範에 관한 確실한 知識을 貯積해 주는 科學이란 없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 앞에 開放되어있는 確실한 知識의 源泉이란 오직 "神의 指導"가 있을 뿐이며 이것은 人間이 地球上에 생존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있어왔던 過程인 것이다. 여기에 알라는 "使徒들"을 보내어 人間에게 神의 指導를 啓示한 것이고 또한 이제까지 啓示된 모든 宗教는 하나였으니 卽 「이슬람」이었던 것이다.

알라의 使徒들은 각기 어느 限度의 範圍內에서 일을 하고져 모든 나라와 社會에 계속해서 왔다. 그러나 時代가 흐름에 따라 啓示된 神의 指導는 人間의 加算에 의해서 喪失되거나 墮落하여 갔으며 그럴 때 마다 새로운 予言者들이 새로운 啓示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人間은 幼年에서 成年으로 成長해 왔다.

그러하여 人間은 급기야 成長期에 도달하여 實質的으로 하나의 家族을 이루게 되자 分派的인 啓示가 아닌 完全하고 最終的인 啓示가 全人類와 모든 時代에 걸쳐 내려지게 된 것이다.

從前의 모든 啓示를 要約하여 宗教의 統一性에 結論을 내린 이 啓示가 卽 「이슬람」이고 이 啓示를 간직한 것이 "쿠란 經典"이며 그

말자가 “人類의 指導者인.” “무함만.” (알라에 그들 속복하소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담.”을 비롯하여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에 이르는 모든 指導者들은 무슬림의 指導者들이며 이들 指導者 중 聖 무함만이 最終的인 예언자인 것이다.

또한 모든 聖經은 무슬림의 聖經인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은 쿠란(經典)만을 追從함이니 이는 쿠란만이 本來의 純粹性을 견지하고 있고 이슬람教는 人間이 生存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올바른 宗教를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 5. 性別의 單一性

機能의 差別待遇는 世界의 文化를 그릇치마 있으니 예를 들면 女性의 地位問題인데 女性은 劣等種이며 附屬物로서 非人道的 取扱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看做되어 왔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觀念을 強力히 拒否하고 人間은 男女分別없이 同一한 起源에서 發生 하었으므로 同一한 地位를 享有함을 가르친다.

男女의 技能과 利害는 相反되는 것이 아니라 相符하는 것이다. 따라서 兩性의 自然的인 關係는 모든 面에서 사랑과 調和의 關係이며 이 사랑과 調和 없이는 眞正한 人間의 進歩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6. 階級의 單一性

이슬람은 相反하는 利害를 解決하여 모든 社會的 葛藤을 除去하므로서 平等한 社會 建設을 目標로 한다.

이슬람은 經濟面에 있어서 富益富를 許容치 않는 原則下에 法律과 憲法에 立脚 「實質의 協同國家」를 考察하고 政治面에 있어서는 「正義의 從事者의 協同國家」를 支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슬람國家는 主權은 오직 알라의 所有일 뿐이고 알라의 이름과 알라의 意思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人間에게는 人間의 統治權이 없는 것이다.

國家元首라 한들 法律以上의 것이 아니며 絕對的 正義가 標語이고 正義確立이 그 目標인 것이다.

이슬람社會의 道德은 敵對的인 批評家의 입에서조차 讚同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西洋學者들의 見解를 例擧하기로 한



다.

H. G Well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스람은 세계의 어느 사회보다도 暴力과 圧迫이 없는 社會를 建設하였다」(歷史概論 p. 325)

H. G. R. Gibb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誇張된 敵愾心에 充滿해 있는 西域社會에서 이스람은 아직도 均衡을 維持하고 있으며 歐羅巴 民族主義의 無政府狀態와 소련 共產主義의 千偏一攄의 編成을 同時에 反對하면서 現今의 구라파와 소련이 똑같은 性格을 띠고 있는 經濟的 強迫觀念에 屈服한적 없다.

(이스람은 어디에? p. 378)

Louis Massignon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람은 平等主義의 概念을 堅持하는 功績을 가지고 있다...이스람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中間路線을 取하고 있다..

(이스람은 어디에? p. 378)

#### 7. 人間活動의 統一性

이스람은 人間의 個性을 하나의 統一性으로서, 생각한다. 따라서 「世俗의인 것」과 「宗教의인 것」을 區別해서 취급하는 것은 非科學的이고 不合理的하며 터무니 없는 것이다.

무스림의 人生은 私生活, 社會生活을 막론하고 神을 위한 生活, 神만을 위한 生活인 것이다.

比較宗敎學者인 Dudley Wright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람은 信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常生活인 것이다.

쿠란에는 때때로 些少한 日常生活의 雜事까지도 惠及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무스림의 生活은 神을 위한 生活인 故로 그것은 絶對로 些少한 것이 아닌 것이다. 무스림의 目的은 神과의 結束에 있으며 모든 面에서 神의 知識을 쌓는 努力에 있는 것이다. 擧擧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스림은 神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 (2) 神에 歸依하는 宗教

“이스람”이라는 말은 “歸依”라는 뜻이다.

이것을 宗教的用語로 “神의 攝理에 歸依”라고 한다. 따라서 “이스람”은 “自然”과 併合한다. 왜냐하면 “自然”은 眞識없이 「神의 攝理」에

歸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自然속에서 例外는 오직 人間이다. 人間은 自由意思에 의하여 “이스람”을 揀해야만 되는 것이지만 神의 創造物과 同列에서 으로서 자기의 運命을 갖는다.

獨逸의 詩人이며 哲學家인 “괴테”는 “사람들은 모두 自己自身の 특별한 意見を 贊美하고 있지만 그것은 理解不足이다. 이스람은 神의 攝理에의 歸依이니 우리 모두 이스람에 살다가 죽는 것이기에…”라고 進술하였다.

### (3) 自然의 宗教

“괴테”의 이 進술은 무스림이 된다는 것은 자기 주변의 “自然”과 調和를 이루어 장다운 人間の 性質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성장해 갈 을 말하는 것이며 聖典은 이점을 明確한 句節로 強調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스람은 自然法則과 一致하는 것이다.

### (4) 苦行의 宗教

“神의 攝理에 歸依”와 “自然法則과의 一致”의 概念이 生活面에서 徹저히 認識될 때 그것은 가장 健全한 形態의 “苦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스람은 가장 우수한 宗教이다.

H. G. Wells 는 그의 著名한 著述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苦行과 歸依가 이스람教로 하여금 崇拜하고 경배할만 한 宗教로 승화시켰다고 생각하며 苦行과 歸依의 精神이 現代世界에 貢獻하는 바 많은 것이다.”

獨逸의 東洋學者인 Friedrich Delitzsch 은 “神의 攝理에 服從해야 하는 義務가 무스림으로 하여금 그들이 不運에 處할 때 模範的인 忍耐力을 發揮케 하고 災難에 處할 때 尊敬할만한 精神力을 간직케 한다.”라고 말하였다. (Die Welt des ISLAM p. 28)

### (5) 眞理의 宗教

“眞理”의 概念은 이스람思想의 關鍵을 形成하여 이스람이 提示하는 宇宙的 秩序에까지 미친다. 그것은 이스람教徒의 人格形成의 機

石인 이슬람의 倫理法典의 基本価値의 “眞實性”을 말한뿐 아니라 쿠란에는 神 尊, “眞理”라 하였고 予言者 聖무함만은 “眞理의 所持者”라 하였으며 쿠란 自体가 “眞理”이고 來世의 住居地를 “眞理의 座”라 하였다.

#### (6) 禁忌의 宗教

이슬람은 만 이런 宗教보다도 “純粹性”과 “禁忌”의 宗教이다.

이슬람은 마음과 精神의 純粹性을 強調할 뿐 아니라(이점은 만 종교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肉體의 純粹性도 強調하고 있다. 그 根本原理는 調和를 이룬 人格 涵養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몸과 마음, 또는 둘다를 不能全케 하거나 嗜치는 酒類와 飲食物은 이를 嚴格히 禁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의 禁忌는 嗜하게 하는 물건(酒類 麻藥 等) 뿐만이 아니라 人體의 發育에 害로운 飲食物까지도 포함한다.

結果的으로 이슬람의 禁忌는 나쁜 思想, 感情, 行爲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 (7) 美의 宗教

만 宗教와는 달리 이슬람은 世上을 輕蔑하는 宗教가 아니며 基本的인 價值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지 않는다.

神이 人間에게 賦與한 모든 機能과 能力을 積極的으로 確實히 完遂하는 宗教이다. 따라서 審美的인 文化는 이슬람 生活의 一部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슬람의 道德과 精神에 의해서 統率되어야 한다. 이슬람에 있어서의 「美」의 概念은 人間活動 全般에 아니 全體的인 宇宙의 秩序에 스며있는 것이다.

予言者 聖무함만 (그에게 神의 平和를 내리소서)은 말하기를 “알라는 美自体이며 또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였다. 思想의 美, 言語의 美, 行爲의 美, 創造的活動의 美는 이슬람의 理想이다.

이슬람은 精神的, 道德的 活動의 範圍內에서 藝術의 創造를 許容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모토는 “藝術을 위한 藝術이 아니라 人生

을 위한 藝術, 이어야 하며 이것만이 精神的, 肉体的 美的 眞正한 融合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合理的이고 調和를 이룬 人生目標을 위하여 藝術作業을 해야 할 일이다.

### (8) 理性的 宗教

이슬람에서는 “理性”을 人間의 本能的-特權, 神이 人間에게 부여한 高尚한 선물로 看做한다. 무란은 人間이 社會的 自然的 現象을 取扱할 때나 또는 神의 “福音”을 理解하고 神의 “指導”를 실행할 때 “理性”을 앞세우므로서 日常生活에 있어 適所에서 “自己判斷”을 할 것을 거듭 反覆하여 勸奨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知的文化는 人間生活을 研究하는 가장 高尚한 作業의 하나이며 知識의 探究와 開發은 男女무스림의 義務인 것이다.

### (9) 迷信을 否定하는 宗教

이슬람은 積極的인 理性的 宗教이며 神秘스런 祭式과 秘敎는 이를 盲目的인 믿음으로서 拒否한다.

迷信의 否定과 이슬람의 “理性”을 肯定하는 Godfrey Higgins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함만의 宗教는 聖敎, 彫像, 繪畵, 神의 어머니 같은 것으로서 敎理를 辱되게 하지 않는다. 作用을 가하지 않고도 信仰心의 效험이 생기게 한다든가 臨終時의 悔改는 모든 罪를 贖罪시켜 준다든가 赦免이나 告解의 效험같은 것을 믿는다 든가 하는 敎理가 아니다.

그러한 敎理는 사람을 우선 腐敗시켜 놓은다음 이들을 聖職者의 힘속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을 放置해 두는 것보다도 더욱 부패시키고 타락케 하는 것이다. 이슬람에는 이런것은 없다. 어미도 없고 神秘와 假裝된 奇蹟도 없는 단 하나의 神을 崇拜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져 한 사나이가 보내여진 이 종교는 아라비아의 唯一-神敎의 간단하고도 중요한 敎理를 구성하고 있다.”

(Apology for Muhammad)

### (10) 實踐의 宗教

이슬람은 錯雜하고도 理解하기 어려운 宗教儀式을 통해서 人間에

지 敎條을 준다는 그러한 宗教와는 날카로운 對照를 이루고 있다.

單純性(簡潔性)은 이슬람의 標語이고 理性은 그 生命의 價値이다. 이슬람은 信仰과 實踐이 一致하는 宗教인 것이다. 무란 속에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함의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실천”에 立脚해 있으며 前者는 空間이고 後者는 時間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11) 均衡잡힌 進歩의 宗教

이슬람의 人生은 “潛在機能을 發掘”해 내는 生活이다. 따라서 무스림은 항상 계속해서 進歩를 위한 努力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進歩는 正義의 支配下에 神의 指導로 啓蒙된 進歩라야 하고 美的인 것에 基盤을 두어야 하고 精神的, 道德的, 審美的, 肉體의 人間의 生活面이 內包되어 있고 均衡이 잡혀져 있는 進歩라야 한다.

有名한 東洋學者인 H. A. R. Gibb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西歐世界內에 있어서 이슬람은 誇張된 敵愾心의 渦中에 아직도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 이슬람의 文化生活 특히 精神生活의 開發에 있어서 이슬람社會의 힘과 能力없이는 구라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슬람은 어디에? p. 378)

### (12) 科學探究의 宗教

만 宗教에서는 科學을 부끄럽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이슬람에서는 科學의 探究를 宗教的 義務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探究는 肉體의 要素에만 耽溺하거나 同胞를 탄압하고 暴君化하는데 目的을 두어서는 안되며 神의 創造物에 대한 知識을 擴大시킴으로서 神을 사랑하고 또한 「自然力」의 統率法을 確保함으로써 人間에게 奉仕하는데 目的을 두어야 한다.

有名한 文明史教授인 Biuffault 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歐羅巴 成長史에 이슬람 文化가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現代世界의 恒久的이고 顯著한 임이며 그 勝利의 最高의 源泉인 自然科學과 科學精神을 構成하는 動力의 起源에 중대하고도 刮目할만한 影響力을 끼친것은 이슬람 文化였다... 歐羅巴의 科學이 亞細亞에 新세진바 많다는 것은 그 어떤 革命的 理論의 新

달만한 亮見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科學이 아랍文化에서 힘 얻은바 많았으나 科學의 存在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듯이 古代世界는 科學以前의 時代였었다. 希臘의 天文學과 數學은 海外에서 輸入해온 것이었으며 이것을 希臘文化에 完全히 適應시키질 못하였었다. 希臘人은 이것을 組織化하고 一般化하고 理論化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끈기 있는 調查方法, 積極的인 知識의 累積 科學方法, 細部的이고 發展的인 觀察態度와 '實驗的인 研究는 結論的으로 希臘 氣質을 넘어서지 못하였었다...

所謂 科學은 새로운 研究精神 새로운 調查方法과 實驗, 觀察 計算의 새로운 方法, 希臘人에게 알려져 있지 않던 教學方法의 發展 等의 結果의 產物로서 구라파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그 精神과 方法은 아랍人에 의해서 구라파에 紹介된 것이였다...

Roger Bacon 과 그 後繼者들에게는 實驗方法을 紹介했다는 資格이 없는 것이다.

Roger Bacon 은 무스림科學(回教徒科學)과 方法을 基督教歐羅巴에 이끌어들이는 嚮導者의 한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아랍과 아랍科學만이 當代의 眞正한 知識에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宣稱해온 사람이다.

實驗方法의 創始者는 누구나 하는 것을 놓고 論議한다는 것은 구라파 문명의 起源을 잘못 取扱하는 誤謬의 하나이다. "베이컨,,(Bacon)時代의 아랍人의 實驗方法은 世界的으로 普及되었으며 歐羅巴全域에 걸쳐 熱心히 開拓되었었다...

科學은 아랍文明이 現代世界에 寄與한 가장 중대한 것이다. 당시의 구라파의 生命을 蘇生케 한것은 科學만이 아니었으며 이슬람 文明의 수많은 影響을 구라파에 전달한 것이다."

(Making of Humanity pp. 190, 202)

H. G. Wells 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現代世界가 光明과 힘(科學的 方法)의 선물을 받은 것은 라틴民族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랍族에 의해서였다."

中世紀에부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슬람에 대한 敵愾心 때문에 西歐社會는 이슬람의 功蹟을 認識함에 매우 느렸다.

그러나 실전 功蹟간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인식함에 이르러 급기야 무스림이 서구사회에 科學的 靈感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면 무스림은 이 科學的 方法과 科學的 靈感을 어디에서

받았던 것인가, 쿠란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 사실도 드디어 西歐社會가 인정하게 된 것이지만,

Stanislas Guyard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七世紀 經 의 旧世界는 고민속에 놓여 있었는데 아랍族의 征服은 여기에 새로운 生命素를 불어넣어 주었다.…”

即, 무함말이 아랍族에게 쿠란을 주었으며 이것이 새文化의 始點이 된 것이다.

(Encyclopesie des Sciences Religieuses, tome IX p. 501)

이שראל의 反對者에 挑戰하고 있는 A. Bertherand 는 쿠란에 言及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偉大한 “經典”을 읽고 冥想케 하라. 偶像崇拜와 物質主義에 對하여 끊임없이 攻擊하고 있음을 句節마다 볼 수 있으리라. 또한 予言者 무함말은 燦爛한 世界와 創造의 神秘스런 現象에 대하여 항상 注目하고 冥想할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予言者 무함말의 忠告를 順從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놀라운 文明을 創造한 사람들인 것이다.” (Contribution des Arabes au progres des Sciences Medicales, p.6)

Emmanuel Deutsch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란의 도움으로 人類에게 光明을 비쳐 주고져 아랍族이 구라파에 왔던 것이다. 世界가 暗黒에 빠져있을 때 그들만은 구라파에 醫學, 醫學, 天文学, 노래와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다.”

### (13) 勞動을 神聖視하는 宗教

이שראל에서는 모든 正當한 勞動을 神聖視하여 노동은 人間發展의 生命素를 이룩한다.

쿠란에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나니.”라고 하였고 予言者 聖무함말(그에게 神의 祝福을 내리소서)도 “일하는 자는 神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였듯이 이שראל에서는 懶怠는 罪이고 勤勉은 美德이다.

### (14) 倫理的 理想主義의 宗教

이שראל은 “神계 歸依한다는 倫理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神의 屬性

을 模倣할 것을 倫理的 理想으로 하고 있다.

그 言語 聖무람만 (神이여 그에게 속복을 내리소서!)은 “神의 屬性이 마음에 배지 하라”고 하였다.

Richard Gregory 卿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宗教的 倫理的 最高 形態는 神의 攝理에 完全하고 묵묵히 服從을 할 것을 行爲의 目的으로 함에 있다... 이 服從은 例를 들면 神의 屬性과 一致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聖徒다운 理想으로서 肉慾의 限界를 내린다던가 하는 人生 規範을 忠實히 自覺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報償을 바라지 않고 正義 그 自体에서 그치는 正義의 慾望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報償을 바라는 마음에서 正義의 慾望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이 생에서의 報償이 아니라 來世의 報償을 바라는 마음에서 正義의 慾望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宗教的 倫理的의 이 概念이 人間行爲의 最高理想에도 到達하는 것이다.” (科學과 文明에 있어서의 宗教 p. 63)

### (15) 平和와 親善의 宗教

“살람”(Salam)이라는 낱말은 “平和”라는 뜻이며 “이슬람”(Islam)이라는 낱말의 語根과 同一系統이다. 이와 같이 “平和”의 概念은 “이슬람”이라는 낱말의 主要한 部分을 구성하고 있다.

참으로 이 概念은 이슬람教 속에 거듭 거듭 스며들어 있다. 古蘭(經典)에 의하면 神은 “AS-SALAM”(앗 살람) 即, “平和의 善”이며 무슬림의 인사는 무슬림 人生觀의 理想을 具體的으로 表現하는 것으로서 인사를 “앗 살라무 알라이쿰, (As-Salam-U-Alaikum)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에게 平和가 깃드사기불” 하는 말이다.

따라서 무슬림 人生觀의 理想의 하나는 모든 면에서 平和를 達成하는 것, 調和를 이룬 自覺을 통하여 自我의 平和를 達成하는 것, 神의 攝理에 대한 基本的인 態度를 持續함으로써 同胞(人類)와의 平和를 達成하고 神의 攝理에 歸依함으로써 神과의 平和를 達成함에 있는 것이다.



## (16) 關爭(聖戰)의 宗教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의 平和의 概念은 유-로피안(空想的 樂園主義)이 아니다. 이슬람은 實踐的 宗教-聖戰(지하드 Jihad)의 宗教이며 不自然하고 非現實的인 行爲를 勸導하지 않는다. 例를 國際關係에서 들어보면 根本的으로 平和와 親善 增進을 圖謀함은 물론이지만 正義의 正當防衛 아니 平和 그 자체를 위하여 싸움 이외엔 別 方法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即, 싸움이 道義的으로 不可避할 경우엔 이슬람은 무스림이 싸움에 參加할 것을 許容하는 것이다.

이슬람 歷史上 惡惡的으로 전쟁과 관련시켜서 이슬람을 曲解하고 있는 이 "聖戰"(지하드 Jihad)의 本質은 "關爭"이라는 뜻인데 이슬람에 의하면 "關爭"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自己의 匹俗한 自我를 高度의 自我에 昇進시키는 關爭이다. 이것은 次元이 높은 "지하드"로서 주로 精神的인 關爭이다.

둘째는 集團的으로 惡의 勢力을 敗北시키는 關爭으로서 이것을 集團의 지하드(聖戰)라고 한다.

集團의 聖戰 또한 說教의 改革을 통해서 集團生活를 하는 사람들 속에 이슬람의 布教와 導入을 하는 平和스런 것과 侵略者에 對戰하는 두가지가 있다.

이슬람의 싸움의 許容은 根本的으로 防衛目的을 위한 싸움이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은 戰爭에서 不道德的인 壓迫을 除外할 뿐 아니라 人間의 尊嚴性이 戰爭의 不道德性을 증가해야 할 堅固한 倫理에 重한다.

O. Houdas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쿠란에는 '그리고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와 神을 爲해 싸우라. 그러나 먼저 攻擊함으로써 不戰을 저지르지 말라. 진실로 神은 不戰을 사랑하지 않는다.' (二章 百九十節)

聖戰은 侵略으로부터 이슬람을 防衛함에 價值判斷이 내려져야만 한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무스림은 被征服者에 대하여 항상 寬容을 베풀어왔으며 被征服者의 立法과 宗教的 信仰을 放任하였던 것이다..

(La Grande Encyclopaedie Jome 20, p. 1006)

"싸움에 이겼을 때 무스림은 輒히 寬容을 베풀었으나 기독교 국가들은 이점이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E. Alexander Powell 은 그의

著書에서 지적하고 있다. (무슬림, 亞細亞의 權力鬭爭 p. 48)

### (17) 強制的으로 改宗시키지 않는 宗教

“信仰에 強制란 있을 수 없지 하라.”고 쿠란에 明示되어 있듯이 이 사람은 強制的인 改宗을 禁하고 있다. 무슬림은 한손에 칼, 한손에 쿠란을 들고 非무슬림을 改宗시켰다는 宣伝은 순수한 虛偽날조다.

宣教師인 O. Leary 博士와 같은 이 사람의 敵對者조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狂信的인 무슬림들이 世界를 席捲하여 被征服者에게 칼을 더리대어 이 사람을 強要했다고 史學家들이 反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더 무니 있는 영터리라는 것은 歷史가 証明하고 있다.

(十字路上的 이슬람 p. 8)

### (18) 兄弟愛의 宗教

이 사람은 모든 神의 創造物을 사랑할 것과 특히 人間家族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聖무함만(神이며 그를 崇拜하소서) 은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자는 神의 家族에게 (即, 人類) 가장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人類를 “이슬람 兄弟愛”에 입자한 “한兄弟”로 생각한다. 이 「이슬람 兄弟愛」에는 身分, 種族, 民族, 皮膚色, 言語 國境이 없으며 그럼으로서 人間 兄弟愛를 위한 神의 從이자 넓은 守護者로서 機能을 發揮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또한 무슬림이 人間社會와 關係를 맺는 人間愛의 禮法을 提示해주고 있다.

이 사람의 兄弟愛는 단순한 말에 끝이는게 아니라 모든 信者는 平等的인 것이다.

“現속 무슬림世界”라는 著書에서 和蘭의 東洋學者인 Smuck Hurgonje 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類聯盟의 理想은 다른 如何한 思想에 依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슬람에 의해서 한결 가까이 接近하였던 것이며, 무함만의 宗教 위에 세워진 國際聯盟은 人類平等의 原則을 採擇하였던 것이다”

## (19) 精神的 民主主義의 宗教

禮拜面에서 볼때 이슬람은 聖職者의 仲介없이 神과 人間과의 直接 연결을 시킨다. 따라서 무스림 男女는 저마다 神의 代理人인 것이다. 이슬람學者(울라마, Ulama)와, 聖院에서 共同禮拜의 執典者(Imam)을 聖職者인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슬람을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무스림이라면 누구든지 敎條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며 "울라마"는 단순한 학자 혹은 이슬람 知識의 專門家일 뿐이며 모든 무스림 兄弟들의 어깨위에 걸머지워진 責任을 이행할 뿐인 것이다.

이슬람은 모든 男女 信者들이 敎條를 가르치는 學者가 될 것을 원하는데 이점 만 종교, 예를 들면 힌두교같은 종교와는 判異한 點이다.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階級만이 그와 같은 特權을 갖는다 (註"브라만"은 印度의 四階級中 가장 높은 階級階級) 基督教 敎師이며 이슬람에 敵愾心을 품고있는 批評家 W. Wilson Cash 敎師도 나중에 가서는 다음과 같이 告白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슬람은 그 信徒들에게 尊嚴함을 부여하였고...神에게 直接 接近케 하는 점이 이슬람의 가장 強力한 呼訴의 하나인 것이다."

(The Expansion of Islam p. 177)

## (20) 人間尊嚴性的의 宗教 — 奴隸問題

自由는 모든 人類의 生得權에 해당한다는 것을 強調함으로써 階級制度, 皮膚色, 國籍의 差別없이 人類는 平等하다는 것을 宣稱함으로써 性惡說과 原罪說을 否定했고 人間은 萬物의 靈長임을 斷言함으로써 人類의 地位를 神의 代理의 자리로 이끌어 올렸으며 神의 屬性을 模倣함을 人類의 倫理的 理想으로 삼아 宇宙의 征服은 人間에게 부여된 運命이라는 것을 指稱함으로써 이슬람은 人間의 尊嚴성을 가장 높은 곳으로 까지 이끌어 올려 놓은 것이다.

이슬람 以前의 文化와 宗教가 저니고 있었던 그릇된 觀念으로 因하여 人間의 尊嚴성은 여러 手段으로 迫害를 받아 왔었다. 階級, 種族, 民族의 이별으로 殘酷性이 만연해있었고 大部分의 人間들은 오래된 制度인 農奴와 奴隸의 地位로 格下되어 있었다.

이 制度는 아랍族을 포함한 구라파와 아세아의 여러 民族들이 "바이블"과 같은 聖書의 裁可를 얻어 조금도 良心의 可賣을 느끼는 바

없이 突行해왔던 것이다. 이슬람은 이와 같은 惡에 대항하는 용감한 絶對를 함으로서 유린당하고 抑壓당하는 사람들에게 救世主 노릇을 할 哲學의 法律을 社會에 내놓았던 것이다.

이슬람의 敵에 대해서 그릇되게 알려진 概念중의 하나가 奴隸制度에 관한 것이다. 奴隸制度, 廢棄에 관한 이슬람의 役割을 正當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拙著 "이슬람과 奴隸制度。(Islam and Slavery)" 를 參考해 주기 바란다.

이슬람法은 "奴隸를 廢에 가두거나 公亮에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쿠란에는(二章) "그들을(奴隸) 구하라. 그러나 그들을 다시 奴隸로 보내는 것을 禁하느니라."고 되어 있다.

## (2) 理性的인 性道德의 宗教 - 多妻主義의 問題

性的 平等에 관한 이슬람 思想은 前述한 "統一性의 宗教"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이 問題에 대한 歷史的 評價는 이것으로 充分할 여지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Lady Evelyn Cobbold는 "메카 巡禮記"라는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人類史에 始初부터 있어왔던 女人의 束縛을 除去하여 女人에게 社會的 地位와 法律權을 준것은 이슬람이었는데 數世紀후에 이르기까지 英國에서는 女人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多妻主義와 關聯시킨 이슬람의 敵들의 宣傳에문에 여기에 關한 特別한 敘述을 必要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多妻主義는 이슬람이 發明한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千年 義務的인 手段도 아닌 것이다. 多妻主義는 우리의 記憶에서 먼 이슬람 以前 社會에부터 있어 왔으며 宗教에서도 이를 裁可하였던 것이니, 例를 들면 舊約聖書에 나오는 聖人들까지도 이를 突行해왔던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는 이것을 統率할 法律이란 없었으며 이슬람 以前의 亞拉社會에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이슬람은 이것을 因襲하여 非常事變外에는 嚴禁한다는 徹底한 制限을 내린 것이다.

사실이지 一妻主義가 이슬람 社會의 理想이며 多妻主義는 하나의 例外일 뿐인 것이다. 이 事實은 이슬람 社會에서 現在도 유지되고 있고 過去도 그러했었다.

William Kelly Wright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大部分의 무스림은 어느 時代이고 一妻란을 갖고 있었다.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1935)

이슬람은 自然스런 宗教이며 性的 不道德과 社会的 疾患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立場을 取한다. 따라서 그것만이 唯一한 救濟策일 수 있는 狀況下에서는 社会的 健全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制限附 多妻主義를 許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戰爭이 男女 比率에 變動을 招來하여 女子가 우세하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는 두가지 方法, 荒淫行爲와 多妻主義밖엔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道德의 健全과 女性의 社會福祉의 利得에서 이슬람은 前者보다는 後者를 挾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첫번 아내가 出産을 못하거나 難治의 病에 걸려있을 때 거기에는 두가지 可能的 方法밖엔 없는 것이며 첫번 아내는 離婚당하고 남편은 다시 아내를 맞이해 드리거나 아니면 남편의 妻에 아내와 함께 통과없이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다.

前者는 첫번 아내의 욕신을 강제하는 것이 되지만 後者는 첫번 아내가 나쁜 誘惑을 받는 일 없이 正常的인 삶을 營爲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生理的 慾求를 滿足시키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女子를 갖는 多淫性 男子는 醫學的으로든 不治임으로 이런 경우의 남자에게 多妻主義는 必要不可缺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責任感과 조진부의 多妻主義는 形式的인 一妻主義의 偽善的인 執着보다도 훨씬 健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에서는 一妻多夫主義를 許容치 않는다. 그것은 心理的으로 不健全하고 社會學的으로 非現實的이고 生理學的으로 肉體의 健康에 매우 危險하기 때문이다. 一妻多夫主義를 하고 있는 原始部族中에는 性病이 蔓延해 있다.

多妻主義에 대하여 Annil Besant 博士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西方社會에는 假裝된 一妻主義가 있고 또한 責任없는 多妻主義가 있는데 “아씨들”은 남자가 失종이 나면 버림을 받고 점차적으로 “거리의 女人, 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다. 왜냐 하면 첫사랑의 惡人은 그 女의 장래에 대해서 責任을 지지 않으므로 家庭主婦로서 多妻의 家族에서 사는 것보다도 몇百倍나 불우한 것이다. 우리가 西方世界의 방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불쌍한 女人들을 볼때 이슬람은 다처주의라

고 비난하고 있는 西方인들이 얼마나 허위에 차있는가 하는것을 느끼게 되는것이다. 한 女人在 환경에 의해서 타락하고 거리로 뺏겨져지고 그리하여 法的 保護밖에서 私生兒를 낳게 되고, 가정없이 버림을 받게 되고, 밤마다 지나가는 남자의 犧牲物이 되고 母性으로서의 할바를 하지 못하게 되어 모욕을 받는 사람이 되느니 보다는 多妻主義下에서 한남편에 結縵되어 綱子를 팔에 안고 남의 존경을 받아가며 사는 것이 여자로서는 훨씬하게 좋을 뿐 아니라 한층 행복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다.

J. E. Clore Hefarlane는 “多妻主義의 實態.”라는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西方社會의 國法은 敎會의 敎理에 立脚하여 一남자가 한 女子以上 결혼한다던가 한 女子가 여러 남편을 갖는 것을 犯罪로 하고 있다... 一妻主義는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驅逐되었다고 하는 것은 事實이 아니다... 이 문제를 社會的으로 道德的으로 또는 宗教的으로 考察하더라도 多妻主義는 高度로 発達한 文明水準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것은 立證할수 있는 것이다... 이 多妻主義는 가난한 女人과 不必要한 女人에 대한 西歐社會의 問題에 대한 現實的인 救濟方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對는 兇暴行爲, 蓄妾制度, 強制的인 獨身生活를 계속시키고 增加시키는 것이다.

(訳者註 - 이슬람의 女性의 地位에 關係서는 同著者의 「이슬람의 女性」 (Woman under Islam)을 參考해주시기 바란다.)

## (2) 現世와 來世의 救濟를 함께 祈願하는 宗教

사람이 죽은 다음의 救濟 - 卽, 來世에서의 救濟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의 人間救濟도 아울러 祈願하는 것이 이슬람敎의 獨特한 점이다.

이 目的을 위하여 이슬람은 道德的 完備과 社會的 進歩, 經濟的 正義와 政治的 健全성과 같은 말하자면 人間의 世俗的인 生活와 全人類의 調和된 進化에 있어서 眞正한 人類의 幸福을 現實的으로 認識하고 成就하는데 必要한 道는 「指針」을 具備하고 있는 것이다.

Laura Veecia Vaglieri는 그의 著書에서 (Apologie de L'Islamisme

D-88)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종교는 人間의 抱負에 應用시키는 理論으로서만 滿足하질 않고 또한 活用할 수도 있고 活用하지 않을 수도 있는 崇高한 戒律을 制定해 놓음에만 滿足하지 않으며 生活의 規範도 아울러 具備하여 人間道義의 根本의인 原則을 組織的 積極的으로 確立하였고 넓은 知的 發展에도 矛盾이 없는 方法, 原則的으로 自身과 他人에 對하는 人間의 義務를 公式的으로 表示해 놓았다.”

### (23) 確實하고 完備한 經典을 가진 宗教

무함만은 다음 세가지 根本的인 長點을 가지고 있다. 即,

- ① 本文의 確實性
- ② 文体의 完備性
- ③ 理性的이고 広範하고 深奧한 指導

이 세가지 長點을 이슬람의 概論的인 이 글에서 取擧하기란 不可能하다. 그러나 些少한 口實만 있어도 항상 이슬람을 攻擊해오고 있는 非무스림 西歐學者들도 前記한 內容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通통하게 具備되어 있는 것이다. 무함만의 아름다운 文体에 稱及하여 Paul Casanova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함만은 그의 布教의 眞偽를 證明할 만한 奇蹟을 보이려는 말을 무함만의 文章構成이 比較할진 없이 卓越함을 引用하여 이것이 神의 功蹟임을 보여주었다.”

Lavra Veccia Vaglieri는 무함만의 完全無缺한 指導와 確實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함만은 文体와 方法이 完備한 뿐 아니라 바로 그 內容 自体가 容내 낼수 없게 되어 있는데 未來에 일어날 事件에 대한 予言이 여러 世紀前에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無視되어온 事件의 關係, 가장 判異한 科學 宗教的인 것이 啓示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함만은 賢者, 위대한 哲學家, 修練된 政治家들이 應用할 수 있는 知慧의 集大成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함만의 神聖에 對한 聖典이 담겨 있으며 이것은 啓示 初期부터 이르는 동안 오랜 時代를 통하여 完全히 保存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宇宙가 存在하는 限 神의 聖典의 더불어 항상 남아 있는

리라. 무스림世界 구성구석에서 잃혀지고 또 잃혀지는 이 제은(주란) 읽는 사람에게 라등의 懲惡를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反復해서 매일 같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무란은 무란 朝齋者와 耶取者에게 深遠한 敎神과 尊敎의 念을 붙여 넣어 준다..

(Apologie de L' Islamisme, pp. 57~59)

#### (24) 敎理가 가장 簡單한 宗教

##### (1) 七 信

- ① 알 라            ⑤ 來 世
- ② 天 使            ⑥ 定 命
- ③ 經 典            ⑦ 復 活
- ④ 使 徒

##### (2) 이슬람의 五柱

- ① 神은 하나이고 무함만은 神의 使徒라는 信仰의 告白(라 일라 하 일랄라 무함만을 라수물라)
- ② 禮 拜
- ③ 斷 食
- ④ 자카트(敎費稅)
- ⑤ 예카 巡禮

어느 基督敎人 이슬람 批評家는 다음과 같이 告白하였다.

"이슬람은 그 神學의 單純性, 敎理와 原則의 明確性, 一定한 實踐事項으로 사람의 靈魂을 平和的으로 征服시키는 힘을 가졌다. 初創期부터 계속적으로 變質해온 基督敎와는 對照的으로 이슬람은 變質 없이 내려왔다."

(Jean Lheureux : Etude Sur L' Islamisme p. 35)

#### (25) 完備하고 人間의 極致인 무함만

무스림은 이세상 모든 人類의 優位에 있는 予言者 聖무함만을 사랑하고, 가장 完備한 人間의 權化이며 絶對的인 指導者, 最終 予言者로서 그를 믿고 이슬람 信仰을 構成하는 不可缺한 "最高의 模範," 으로서 그를 追從한다.



이것이 이 사람의 予言者 聖무함란의 神學的 身分인 것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聖賢은 殿階에서 보내져 온다."고 하였드시 聖무함란에 관한 西歌學者의 말을 引用하기로 하였다.

무함란은 外貌가 堂堂한 長身이었고 風采는 顏色과 容貌에 豐富한 想像力, 品位있는 마음, 纖細하고 端正한 感情의 所有者였다. 그는 커린귀의 麗女보다도 수줍은 사나이였다고 한다.

그는 손아래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썼으며 몸종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꾸짖는 일이 없었다.

'나는 使節님 곁에 十年을 모시고 있었지만 <아 저런> 하시는 말씀의엔 꾸짖는 말씀을 들은일이 없었습니다.'라고, 그의 몸종 '안나,는 말하였다.' 그는 가족을 여간 사랑하지 않았다. 대장간집 아내인 傭婦집 연기 자숙한 곳에서 그는 이들의 측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였으며 膝上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걸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하였다. 그는 일생동안 한번도 남을 때린적이 없었다. 가장 나쁜말을 썼다면은 그것은 '나한테 뭐하러 왔오? 그 이마에 흙칠을 해줘야겠군!', 하는 말을 세본 일 밖엔 없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남을 저주하려 때어난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고쳐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병석에 누어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고 상여가 지나가면 棺 뒤를 쫓아가고 奴隸가 초대하는 저녁식사를 거절할적 없고 피리진 옷을 손수 껌뻌고 손수 양젖을 짜고 남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남과 만나서 악수할때 저쪽에서 손을 세기 전까지는 먼저 손을 세지 않고 저쪽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먼저 돌아서는 법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에겐 가장 신앙심이 강한 보호자였으며 부드럽고 수궁이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누구나 그가 눈에 띄기만 하면 당장 존경하는 마음이 가슴에 그윽해지는 것이었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를 존경하였고 "저런 사람은 전에도 본일이 없고 이다음에도 없을거요"라고 하였다.

그는 매우 寡黙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면 力說과 細心으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잊어러릴 수가 없었다.

그는 標欄나무 잎사귀와 흙으로 만든 보잘것 없는 흙집에 살며 때

로는 나무에 붙을 붙이기도 하고 방바닥을 뜯어 내고 손수 양젖을 짜 내기도 했다. 밥상머리에 끼어들고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기 떡을 것도 넉넉히 못하면서도 나누어 주곤 하였다. 진실로 예언자의 집은 하나의 梔子나 符合室 같은 것이어서 거기에는 순전히 予言者의 寬大에 依存해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있었으며 그러기에 “외지의인간”들이라고 불려왔던 것이다.

그의 보통식사는 “메이트”(麥麵子)와 물, 혹은 보리빵이었고 밀크와 꿀은 꼭 좋아하였으나 사치스런 음식이어서 여간해서 먹지 않았고 있다고 있었던 것이다. 사막의 음식물은 그가 아라비아의 主權者가 될 후에도 가장 마음에 맞는 음식이었던 모양이다.

한 인간이 언제나 부드럽고 수줍어 하고 그런가 하면 영웅적일 경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尊敬과 거의 愛情에 가까운 감정에 빠진 나머지 盲目的인 判斷을 내릴 위험성이 있는 법이다. 反對者한테서 孤立되어 여러해 동안 받아오는 미움을 무시해온 그 사람이 남과 악수를 할때 상대방이 손을 빼기전까지는 먼저 손을 빼질 않고 길 가다 어린이들을 만나면 인자한 눈매로 微笑를 보내고 항상 친절하고 甘味로운 음성으로 말을 거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솔직, 단박한 友情, 高貴한 寬大, 屈하지 않는 勇氣와 希望, 이 모든것이 反對者의 批判을 尊敬으로 解水시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高貴한 意味의 熱狂者였으며 그 熱狂은 인간의 부패를 막아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다.

이 熱狂이란 無價値한 것과 손을 맞잡거나 結實을 맺지 못하는 때 마른 땅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熱狂은 흔히 심술궂은 죄도로 쓰여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무함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熱狂이 세상을 타오르게 하는데 필요한 熱狂者였다. 그러나 그의 熱狂은 高貴한 目的을 위한 熱狂이었다. 그는 위대한 眞理를 人間의 生命의 샘으로 만드는 최고의 噴井에 도달한 얼마안되는 행복한 사람중의 하나였다. 그는 唯一神의 使徒로서 자기가 무엇이냐는 것과 자기의 骨髄를 이루고 있는 啓示를 죽는날 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다. (Speechs and Table-Talk of the Prophet Muhammad. Introduction XXV III - XX X)

“카-라일”은 그의 著書 “英雄論”에서 予言者 聖무함만의 榮光스런 布教의 成功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랍國家에게 이슬람은 黑暗에서 光明으로의 誕生이었다. 아라비아는 이슬람으로서 비로소 蘇生한 것이었다. 貧困한 遊牧民이 創世紀에부터 알려지지 않은 沙漠을 漂浪하여 왔으나, 거기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英雄予言者가 보내겨온 후부터 그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곳이 世界의 注目의 標的이 되었고 조그마한 곳이 世界的으로 偉大한 곳으로 커지게 된 것이다. 그후 一世紀內에 아라비아는 한편엔 “그라나다(Granada… 옛 西사라센王國의 首都), 한편엔 “데리.. (Dehli)를 장악하여 燦爛한 天才의 光明이 빛나게 됨에 이르러 아라비아는 광범한 世界全域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 아랍族의 人間 무함만은 마치 불꽃 하나가 떨어져 내려와 겹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沙漠에 빛이 퍼져가고 있는 것과 같지 않으랴? 보라! 沙漠은 爆發力을 立証하여 “데리,에서 “그라나다”에 걸쳐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음을”

佛蘭西 學者 O. Houdas 는 五十年前 그의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邊陲와 平行에서 발전한 종교觀 歷史上 없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半世紀도 못걸리는 동안에 인더스江邊에서 西大洋沿岸까지 퍼져나가 十三世紀동안 存続하고 있다.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에 浸透한 이후 이슬람은 아프리카大陸으로 계속 뻗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大陸은 머지않아 全적으로 무스림이 되리라. 특별한 宣敎事業이나 武力을 쓰일 없이 이슬람은 검은大陸을 改宗시킨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小數白人 무스림 地域社會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事實이며 그들 白人들은 이슬람敎理를 받아드리어 布敎에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슬람의 구라파大陸은 현재로서는 淸快할만한 것이 못되지만 분명히 성장해 나가리라.

(La Grande Encyclopaedie tome 20 Article : Islamisme)

## (26) 神의 사랑속에 吸收됨이 窮極의 目標인 宗教

알라의 사랑을 體驗하고 그 사랑속에 吸收되어 甘味롭고 恍惚한 알라의 사랑이 가슴에 스미어 神의 痕跡을 어기지 못하게 됨으로서 “永遠한 삶”- 平和, 發展 完全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스림에게 眞譯된 窮極의 目標인 것이다.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P. O. BOX 8631  
SALIMIAH - KUWAIT 22057